

## 엄마젖은 신비로운 세계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요즘의 아이들은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듯 그 때의 나는 — 주산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바가지 머리를 한 6학년 남학생을 처음 만났다.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9년 6월 4일. 이제는 더이상 바가지 머리가 아닌 전형적인 셀러리맨의 모습을 갖춘 그 소년은 내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예쁜 딸 수빈이. 긴 세월의 결실인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분은 실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였다. 더군다나 출산을 하고 나니 임신기간 내내 나를 괴롭히던 갈비뼈며 다리의 통증도 함께 사라져, 내게는 이제 몸조리 잘하고 아이 예쁘게 키우는 일만 남은 셈이었다.

강원도에 계신 양가의 어머님들은 두분 다 직장을 갖고 계셔 몸조리는 친정 언니네에서 하기로 했다. 언니는 정말 코피까지 흘려가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지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완벽주의에 예민한 성격의 나는 아이가 잘 때도 함께 자질 못하고 괜히 어수선하게 허둥대고 있었다. 아이에게 뭔가를 해 줘야 할 것 같고 글썽, 뭐랄까. 엄마는 24시간 대기중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한 달을 보낸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썸엔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되었다. 더운 날 씨앗이었을까. 자연분만을 했지만 상처가 다 낫질 않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올 때는 나 혼자 무얼 어떻게 해야할 지 너무나 겁이 났다. 마치 운전대를 처음 잡고 사거리에 내 물려진 초보운전사의 마음 같다고나 할까.

그렇게 서울로 온 수빈이는 옆친데 댄친 격으로, 젖맛을 알아버려 이제 더이상 고무 젖꼭지를 물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유를 줘야 하는데, 어찌지, 아가야? 이 바보같은 엄마는 심한 산후 우울증이 오고 말았구나.

현관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듣기 싫고 그러다가도 너무나 외로워 눈물이 나곤 했다. 아이는 배가고파 우는데 입맛은 전혀 없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결혼생활 4년간 반지하 단칸방에서 햇빛 한줌 없이 생활한 우리 부부가 출산을 대비해 2월에 이사한 집은 산꼭대기였지만 그야말로 햇살이 눈부신 2층 다가구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햇살’이었다. 몸조리를 하고 7월에 올라오자 10평 남짓한 우리집은 하루종일 그늘 한점 없는 햇살의 집중공격 대상이었다. 땀은 빠질빠질 나는데 아이는 빈젖에 매달려 하루종일 울어댔다. 나도 울었다. 난 서른이 넘도록 너무 바보같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든데 내게 기대만 오는 이 작은 생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를 낳으면 모든 게 핑크빛일 줄 알았는데... 새근새근 잘 졸 알았던 아기는 늘 예민해서 옆에서 티슈만 뽑아도 깨서 울고 예전처럼 예쁜 웃도 입고 멋도 내리라 다짐했는데 몸매는 둥글둥글, 생활에 쫓겨 화장이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고장난 수도꼭지마냥 자꾸만 눈물이 났다. 아기가 울 때 나도 울고 아이가 잘 놀 때도 또 울었다. 아기가 울 때는 괴로워서 울었고 아이가 잘 놀 때는 저 어린 생명도 새로운 생활에 이렇게 잘 적

응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어서 한심해서 또 울었다. 나는 점점 모유를 먹이는 일에 지쳐가고 있었다.

아이가 생후 8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젖을 떼야겠다 결심했다. 젖을 떼고나면 이 지겨운 미역국이며 사골국도 안먹어도 되겠지 싶었다. 아이는 이내 울었다. 이럴 땐 선배 엄마들의 말로는 아이에게 말을 해 주란다. 아가야, 네가 여차저차해서 젖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제 분유를 먹자. 아이를 안았다. 잘 얘기해 줘야지. 그런데 아기의 새까만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 순간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기는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엄마! 젖이 먹고 싶어요.”

아기는 눈으로 말했지만 난 귀로 똑똑히 들은 듯 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건 소의 젖에 영양을 첨가하고 엄마 젖맛을 흉내낸 분유가 아니라 바로 내 젖을, 엄마젖을 필요로 하는구나. 머리를 한 대 맞은듯한 충격으로 결국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젖을 물렸다.

그렇게 어설픈 초보엄마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교회에서 나이 지긋하신 여전도사님이 심방을 와 주셨다. 내가 모유를 먹이고 있노라고 하자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 수빈이를 안고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수빈엄마, 참 신비롭지 않아요?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는데도 젖을 물 때면 혀로 입술을 축여 젖을 물고, 엄마는 아이와 떨어져 일을 하다가도 젖을 보면 찌르르하고 아파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할 때를 알리니 말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엄마와 아이를 이렇게 신비롭게 창조하셨답니다.” 정말 그랬다. 그제서야 나는 다시 한 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웬

지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의 눈물과는 달랐다. 나약하고 짜증섞인 초보엄마의 눈물이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을 꾸짖는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마지막 눈물이기도 했다.

엄마가 울보딱지를 떼자 수빈이도 ‘짜까난 울보’ 이기를 멈췄다. 엄마가 잘 먹으니 젖도 잘 나오고 아이의 성격도 유순해졌다. 수유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육아에도 점점 자신이 생기자 제법 재미가 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요즈음도 수빈이는 젖을 먹을 때면 한쪽 젖가슴은 식사중, 또 한쪽은 손으로 꼼지락 꼼지락 만지며 꼭 엄마와 눈을 맞추려 한다. 혹시 내가 TV에라도 정신이 팔려있으면 꼭 깨물어 혼쫓이 나게 하는데 그럴때면 나도 가슴으로 코를 눌러 1

초간 숨막히게 하는 고통(?)을 주는 데 이런 장난을 주고 받으면 수빈이는 재미있어 까르르 까르르 넘어간다. 젖병에 분유를 넣어 혼자 눕혀놓고 제 할일 하는 엄마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묘한 정이 흐르는 순간이다. 그런 수빈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역시 왼쪽 젖이다. 그건 바로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자, 어때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 모유를 먹일까, 분유를 먹일까 고민하는 예비엄마들!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당당히 젖을 꺼내 먹이던 우리네 엄마들의 모습,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붓을 다시 만들어 보는 거요. 그렇게 미개하게만 보지는 않는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의 유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오물거리는 예쁜 입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건 모든 이들의 가슴을 푸근하게 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니까요. PPFK

본 난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분 새빛상에 입상한 감미경씨의 작품입니다.